

## [연휴 끝...볼만한 전시①] 거장들 작품으로 물든 삼청로

2017.10.08

### 갤러리현대 · 학고재 · 국제 · 바라캇 서울 등 4개 화랑 영국 · 독일 · 미국 · 아프리카 현대미술 거장들 개인전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올 것 같지 않던 2017년의 10월이 오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최장 열흘의 연휴가 끝났다.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마음이 허하다면 주말 찾아갈만한 전시를 미리 체크해 두자. 지금 삼청로의 주요 갤러리들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개인전이 한창이다. 스타들의 총출동이란 말도 아깝지 않다. 란 스튜디오를 시작점으로 삼청 파출소까지 이르는 길, 놓치면 두고 두고 아쉬울 전시들을 헤럴드경제가 선별했다.

▶바라캇 서울, 엘 아나추이 ‘관용의 토폴로지’=150년 전통의 글로벌 화랑 바라캇의 서울 분점인 바라캇 서울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세계적 설치미술가 엘 아나추이(73)의 첫 한국 개인전을 연다.



엘 아나추이, skylines?, 알루미늄과 구리철사, 2008, 300 x 825 cm. 작품 앞에선 엘 아나추이 작가. [사진=헤럴드경제DB]

엘 아나추이는 병뚜껑 등 알루미늄 조각을 구리 끈으로 엮어 금속 태피스트리 처럼 만들고 이를 구기고 접어 변형시킨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시대, 반강제적인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된 술병 뚜껑을 모아 선보인 그의 작업은 동시대 아프리카 문화에 여전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은유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후기 식민주의’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엔 베니스비엔날레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아프리카 출신 작가로는 처음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엘 아나추이, skylines? 세부이미지, 알루미늄과 구리철사, 2008, 300 x 825 cm. [사진=헤럴드경제DB]

‘관용의 토폴로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인전에선 버려진 금속 소재들을 이용한 태피스트리 신작을 비롯 프린트 등 작가의 대표작 시리즈 9점이 선보인다. 특히 프린트 작품들은 초창기 작가가 작업했던 나무접시와 병뚜껑을 접기위해 바닥에 까는 목판을 차용했다. 수백 혹은 수천의 병뚜껑이 접혔던 목판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 쌓였다. 작가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물건엔 그 사람의 DNA 혹은 에너지가 남는다고 믿는다. “버려진 물건들과 이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고리가 생겨난다. 일종의 역사, 이야기가 남아있기에 서로 연결되는 것”이란다. 금속 태피스트리엔 작가 스튜디오가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노동도 함께 들어갔다.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아프리카인 개인의 이야기이며, 구리선은 그들을 연결해주는 물건의 연결망인 셈이다. 11월 26일까지.

/vicky@heraldcorp.com